

인사동 경관의 사회 구성론적 해석

김연금*, 김해경** · 최기수***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n Interpretation of the Insa-dong Landscape from a Social Construction Viewpoint

Kim, Yun-Geum*, Kim, Hai-Gyoung** · Choi, Key-Soo***

*Community Design Cente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In this study, the landscape of Insa-dong wa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a social construction of landscape, which regards the dynamic process of landscape change as more important than landscape visibility. This viewpoint also regards landscape as the result of its interaction with certain actors. From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subject,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images are essential factors influencing landscape change.

Insa-dong, which was Kwanindaing and Daesad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acquired symbolic meaning as a traditional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cause of its many antique shops and Korean-style buildings. In 1970, the establishment of modern galleries in the district added to its image as a haven of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sa-dong thus eventually came to be referred to as "the street of traditional culture" by the people of Korea. Thanks to global festivals like the Asian Games,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Insa-dong's reputation as a cultural tourist destination has become stronger as these festivals created a need for a place in Korea where the country's traditional culture can be showcased to foreign tourists. After the mid-1990s, the merchants of Insa-dong began to cash in on the district's image as a showcas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due to the economic depression that emerged then.

The people of Insa-dong and those outside it, however, came to feel that this trend damaged the district's image. Therefore, the people of Insa-dong and the district's local government started a movement to restore the aesthetic value and symbolic meaning of the district's landscape. This effort induced institutional change. Insa-dong used to be a natural haven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Its landscape has recently been reconstructed so that this image could be restored. This process was made possible by the active interaction of diverse people: merchants, users, administrators, and NGOs.

Key Words: Interaction, Insa-dong, Landscape Image, Tradition

Corresponding author: Yun-Geum Kim, Community Design Center, Seoul 130-100, Korea, Tel.: +82-2-2297-8983, E-mail: geumii@empas.co.kr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거나 경관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다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이후 현대적 화랑이 입점하면서 '문화'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시, 서울의 차별성이 있는 장소로 정비되고 홍보되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내부인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국가권력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말 2000년 초 골동품 산업의 쇠락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동의 내부인들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상승 및 인사동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던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문화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경관은 인사동에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 활용과 유지를 위해 경관이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근래 장소마케팅 등 경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만큼, 경관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심화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상호작용, 인사동, 경관 이미지, 전통

1. 서론

인사동은 찾는 사람은 하루 약 십여만 명¹⁾, 외국 관광객의 서울에 대한 대표 이미지 1위(경향신문, 2008), 서울에 대한 관광 안내서(대한항공, 2008)에서 인사동은 필수코스이다. 인사동에 대한 소개는 '전통'에 귀착되고 그 유래도 짧지 않아, 1970년대의 신문기사에서도 인사동은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1970년대와 동시대의 '전통'이 지칭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다. 1977년 신문 기사에서 인사동은 '조상의 손길이 어린 목기며 미술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2008년 『서울관광종합가이드북(2008)』에는 '전통체험·전통축제·한식집·전통찻집·한복을 통하여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소개되어 있다. 경관에도 차이가 있어 1970년대의 신문 기사와 기록사진의 인사동 거리에는 고미술과 관련된 표구사, 화랑, 낮은 도시형 한옥이 보이지만, 현재는 전통음식점, 몰화, 전돌 포장, 현대적인 건물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하는 상징성과 경관에 주목했다.

경관을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²⁾. 기존 경관에 대한 접근방법은 가시적인 형태에 집중하였으나, 근래에는 문헌이론, 기호학, 담론 이론 등이 경관연구에 활용되면서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text)로 보고 있다. 지도(maps)·회화(paintings)·

여행기(traveller's)·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지명(place name)·종교적 상징물(religious symbol) 등이 연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경관을 보고(seeing) 분석하는(analyzing) 대상이 아닌 읽고(reading) 해석(interpreting)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경관을 통해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영민, 2001).

경관을 통한 사회 읽기에서 더 나아가 경관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주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경가이자 조경이론가인 Corner and Balfour(1999)는 경관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발견되고, 배양되고, 투사된다고 보았다. Duncan(1990)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도시경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경관을 무의식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의 재생산과 논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조명하였다. 또 일본의 中川 正(1989)과 한국의 강학순과 박찬숙(1992)은 Giddens(1984)의 특정지역의 경관을 공간적으로 표출된 사회적 행위의 구조의 산물로 보는 구조화 이론³⁾에 이론적 토대를 둔 경관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경관이 생태계의 자연법칙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purpose)을 가진 행위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누가 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특정한 장소의 경관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질

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체계적 해석의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시간적 변화 속에서 '전통문화'라는 특징을 갖는 인사동의 경관은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이론연구를 토대로 인사동 경관의 사회구성론적 해석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는 사회구성론적 시각에서의 경관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사회학과 지리학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관을 사회구성론 입장에서 보아야 할 타당성과 경관 해석에서 유용한 틀임을 검증하였고, 경관의 해석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바를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에는 인사동 관련 문헌 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사동 경관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심포지엄 자료, 사진자료를 참조하였고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인터뷰는 2002년 1월에서 9월에 예림화당, 한조당, 고보당 같은 화랑과 귀천 같은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상인, 인사동을 담당하는 종로구청 정책담당자, 인사동 보존회장을 1차 면담조사하였다. 2차 인터뷰는 최근 문화지구 지정 후 인사동 내부인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2008년 8월 1차 면담자 중 상인과 현재 인사동 보존회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의 인사동 관련 연구 또한 검토가 되었는데, 특히 이소영(1999)과 장옥연(2004)의 연구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소영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 장소마케팅의 과정과 당시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소영의 연구가 경관마케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본 연구는 경관마케팅 자체를 포함하여 경관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차별성을 갖는다. 장옥연의 연구는 문화지구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당시의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본 연구가 '경관 구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장옥연의 연구는 관계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었다.

II. 경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사회적 구성

지리학에서는 일찍부터 지역(地域)과 공간(空間)을 사회구성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공간을 측정하려는 논리실증주의적 연구와,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나 사회 구조는 간과하는 인간주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공간의 사회구성론은 '지역성은 자연스럽

게 형성되거나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신 정치적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역성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프로세스(권력관계 등)의 상호작용이 공간을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된 공간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조아라, 2007). 이러한 접근의 선도적 학자로 Lefebvre(1991)를 들 수 있다. 그의 '공간의 생산' 이론은 도시공간의 역사적 출현과 공간의 정치·경제적 형성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여겨져 왔다. 그는 공간의 생산을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공간의 형태는 공간 자체를 재현하는 '공간의 재현'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재현되는 '재현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모순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간적 실천'이다.

Shields(1991)는 '사회적 공간화'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을 일컫는 말로 공간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를 통한 공간적인 것의 사회적 구성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 Low(2000)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을 제시하였다. 그는 물리적 배경이 실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이념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루었다. 사회제도나 역사의 맥락에서 공간의 생성을 이해하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승희(2000)가 공간의 사회적 구성을 '공간의 사회적 의미화 과정'으로 정의했다. '의미'라는 단어에는 '개인의 내면적 수용'이라는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고, '사회적'이라는 단어에는 객관성이나 구조·권력·이데올로기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장소(주관적인 개인의 경험 세계)와 공간(객관적인 사회구조적 세계)에 대한 변증법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경관에 있어서도 사회구성론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이들이 있다. 일본의 中川 正(1989)과 한국의 강학순과 박찬숙(1992)은 문화 경관은 인간을 초월한 문화도 개개인의 인간행위에 의한 것만도 아니므로,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화경관은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행위에 의한 사회적 실행과 규칙과 자원이라는 매개를 통해 (재)생산된 구조, 이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재)생산된 문화요소가 시간 공간 속에서 사회적·체계적으로 통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Giddens의 구조화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또, 송희은(2007)은 창경궁을 사례로 다루면서 권력의 주체는 상징적인 경관을 만들어 자연화(naturalizing)시키며, 새로운 세력은 구세력의 상징적 경관을 뒤집으면서 권력의 이동을 선포한다고 했다. 송희은(2007: 25)은 "경관을 뒤집는 것은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며,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상징적 경관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경관의 사회구성론적 관점은 경관이란 자연스럽고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변화하고 형성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요구와 인간의 의도적 기획에 의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경관을 경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보는 것이며,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행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행위는 행위자들의 의식, 실천 그리고 집합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구성론적 경관해석의 특수성

앞에서 ‘경관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면, 본 절에서는 경관의 사회적 구성에서 경관의 어떤 요소가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Paasi(1995)는 지역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며 출현하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 과정을 영토적 형성, 상징적 형성(생산자의 입장), 제도적 형성, 지역체제와 사회의식(수용자) 속에서의 지역 설립의 4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지역 의미의 생산자와 수용자를 구분하였으나 거시적 접근으로 추상적 논의에 머문다는 단점이 있다. 조아라(2007)는 Paasi의 이론을 수용하여 일본의 홋카이도 관광도시를 사례로 지역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해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단계를 제시했다. Paasi의 추상성을 극복하고자 구체적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도시 규모의 거시적 접근에 머물렀다. 이들의 연구는 공간과 지역의 재구성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물리적 환경·상징성·제도·의식(意識)을 제시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거대 담론적인 성격으로 거시적인 의미 획득 과정에서는 유용하나, 지역과 인간 행위자(주체) 간의 상호관계와 일상적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Martina Löw(2008)는 일상의 공간에서 행위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추동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Giddens의 구조의 이중성 이론을 빌려와 공간은 행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일상 행위의 반복과 사회적 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재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공간의 추동력으로 ‘분위기(atmosphere)’를 제시하고 있다. 게스탈트 이론에서처럼 우리의 지각은 공간에 질서를 주려 하는데, 분위기는 이러한 지각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이라는 것이다. Löw가 공간에서 분위기를 공간 구성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면, 송희은(2007)은 경관의 구성과정에서 이미지의 자연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녀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장소성과 상징성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읽었는데, 창경궁의 이미지가 권력주체에 의해 생산된 후 생활 주체들에 ‘자연

화’되며, 권력 주체가 바뀐 후 다르게 부여된 이미지가 다시 자연화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관 이미지는 시각적인 측면 외에 경관의 상징성까지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경관의 자연화’란 문화지리학자 Duncan(1990)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경관이 한 가지로만 해석되고 다른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배제되었을 때 그 경관은 자연화 되어(naturalizing landscape)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생성된 경관 이미지가 생성주체뿐만 아니라 해석자와 수용자의 인식에서까지 보편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석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위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환경·제도·이미지라는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관에서 물리적 환경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토대가 되며, 제도는 행위자(권력주체, 수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환경이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體制)이다.

III. 인사동 경관의 사회구성론적 해석

1.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경관 구성 과정

1) 조선시대, 인사동의 지정학적 특징과 양반 거주지로서의 특징

인사동이란 명칭의 연원은 조선조 한성부의 관인방(寬仁坊)과 대사동(大寺洞)로, ‘인사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이다(김연희, 2004). 보통 인사동은 안국동 로터리에서 종로2가로 이어지는 가로(인사동길)를 의미하나, 넓게는 관훈동·경운동·인사동·견지동·낙원동·공평동 등이 포함된다. 인사동의 경계는 북쪽에 율곡로, 동쪽에 삼일로, 서쪽에 우정국로, 남쪽은 종로를 경계로 한다. 즉,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4각형의 블록이 ‘인사동’인 것이다.

한성부 서울은 동양의 도시 조영의 문법이 되는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의 도성의 규범적 형태를 따랐는데, 한성부는 자연지형상 모든 원칙을 따르지는 못하고 시설배치에 관한 것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한성부 서울은 5부(部)·52방(坊)⁴⁾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인사동 지역은 중부의 관인방(寬仁坊)에 속한다. 중부에는 중인(中人)들이 주로 거주했으나, 지금의 종로구 청진동에 밀집해 있었고, 궁과 가까운 인사동 지역에는 행정관서나 양반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강명관, 1992). 유학자인 이율곡, 효종 때의 이완 장군의 집터가 있으며, 관훈동에는 중종 때 왕도정치를 주장했던 유학자 조광조의 집과 충훈부(忠勳府)⁵⁾, 박영효가(1760년)⁶⁾가 자리 잡고 있었다(황선욱, 2000). 길의 형태는 안국방(安國坊)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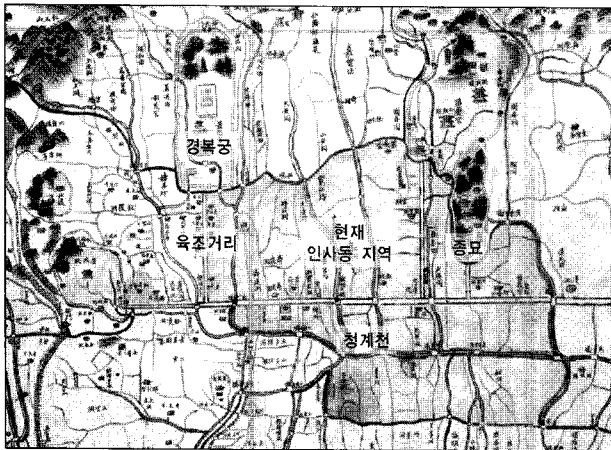


그림 1. 도성도(여지도, 18세기 중엽)에서 보이는 인사동
 자료: 서울학연구소, 서울의 옛지도: 1995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조선 말기에 이르면서는 권문세가들이 이웃집을 매매하거나 이웃집에 붙은 밭 등을 사들여 규모가 더욱 커졌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의 수요가 늘자 대가 일부나 접근도로변에 소형 대지들이 생겼다.

2) 일제 강점기, 골동품 거래 시작

행정관서가 자리 잡고 양반들의 주거지였던 인사동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인 1920년대부터이다. 1920년대 일본인이 주로 머무르던 명동과 충무로의 상권이 발전하면서 상인들은 점차 인사동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양반가의 몰락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나 고가구의 거래 장소가 되었다. 지금은 골동품이라고 불리지만, 당시에는 단지 고물이었다. 고 예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인들이 인사동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골동품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가게들이 생겨났다. 민중서관과 삼중당 서점 같은 작은 서점들도 들어섰다. 이들 업종을 찾은 문객과 서화가, 골동품을 사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방과 찻집, 음식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조선시대 길을 따라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복개되어 길의 폭이 넓혀졌다. 일제강점기 말, 고위 관리 양반들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그들 대가의 대형 필지들이 소규모 택지로 분할되면서 막다른 골목이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오밀조밀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가로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개량 한옥들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많은 한옥 중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것으로는 1930년에 신축된 민익두가(閔翼斗家)⁷⁾가 있다. 율곡로변과 인사동길 주변에서는 주거에서 서점, 병원, 이발관, 가구점, 여관, 음식점 등으로 변환되면서, 벽돌을 사용한 2층 건물과 한옥지붕을 2층에 씌운 형태의 건물이 나타났다.

3)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 골동품 매매장소 본격화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사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패망에 준비 없이 쫓겨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우리의 고미술품·고가구·고서 등의 골동품을 대량으로 거리에 내다 팔게 되었고, 6·25 전쟁 후에는 형편이 어려워진 안국동 등 인근의 주민들도 골동품을 팔면서 골동품 매매장소로서의 인사동의 입지는 더욱 강화했다. 더욱이 60년대 들어 명동·충무로의 골동품 상가가 땅값 상승 등으로 쇠퇴하게 되자 인사동은 싼 임대료와 상가집결을 무기로 골동품·고미술 거리로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물리적 변화에는 대략 1,080평이나 되던 경운동 64번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개량한옥이 들어섰고,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건물들도 개량 한옥으로 재건축되거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었다. 종로경찰서(1957년 이전 신축) 등이 그 예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통문관의 이경노는 2002년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골동품은 해방 후에 많이 들어왔지. 전쟁 끝나고 서울 환도 전에는 저기 충무로 저, 아현동 그런데 빈집들이 있으니까, 피난 갔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거든. 먼저 들어오니까 뭐 할 일 없고 하니까. 고물들 놓고 파는데 미국 군인들이 와 구경하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사 가고, 골동품, 그때는 골동품이 아니라 고물이지. 고물을 팔다가 차츰 환도하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 아니야. 집 내어주고, 여기가 집세가 싸니까 이쪽으로 온 거지. 표구점은 해방 후 여기 골동품 생기면서 생겼지.”

4)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 골동품 산업 네트워크 발전과 화랑가

1970년대 초반은 골동품 매매의 전성기였으며, 고미술과 관련된 표구점과 팔방 및 지업사, 고가구와 관련된 가구점도 들어서게 되었다. 점차 전통문화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더불어 고미술품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화랑이 들어섰고, 현대미술을 다루는 현



그림 2. 1950년대와 1970년대의 인사동 경관
 자료: 개발연구원, 2002: 15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대화랑⁸⁾ 같은 화랑도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1981년 신문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는 현대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화랑가가 형성되어 미술의 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중략) 화랑이 자리 잡아 전통과 현대를 고루 섭렵, 감상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서 인사동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조선일보, 1981).”고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골동품과 관련된 산업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되면서 인사동은 골동품과 화랑이 결합한 예술의 거리가 된다(종로구, 2005). 화랑가가 증가하면서 미술과 관련된 용품을 파는 곳도 증가하게 되고, 관련업종인 민속공예품점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골동품 수집가들 뿐만 아니라 미술인, 문인들도 찾는 곳이 되었다. 또한, ‘메리의 거리(조선일보, 1997)’라 불릴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 한국적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는 골동품의 전성기인 만큼 통인가게(1973년 신축) 등 건물들이 단장되었고, 인사동길과 율곡로의 결정점 부근에 상업건물도 신축되었다.

5)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골동품산업 쇠퇴와 상징성 강화

골동품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던 인사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위기를 맞게 된다. 고가구 전문가 백환송에 의하면, 고가구의 경우 “1970년대부터 등장한 호마이카 같은 신가구 등장으로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진품이 더는 등장하지 않아 거래가 활기를 잃었다.”고 한다. 고서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러한 위기는 가시화된다. 1974년의 세금 증과세와 미술품 과열투기로 말미암은 가짜 고서화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켰다(조선일보, 1981). 이러한 내부적 위기에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사회적 상징성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같은 국가적 이벤트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종로구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고완기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한 쇼핑거리 특성화를 위해 인사동 지역의 주민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86년과 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위한 쇼핑거리가 필요했지. 그래서 인사동을 키우자고 주장했고, 근 8년을 종로에서 생활하면서 담당했어. (중략) 인사동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이벤트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인사동 축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어서 이들 20명 정도가 돈을 각출해서 1,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구청에서도 1,000만 원 정도를 보조해줘서 행사를 추진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6년 종로구청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인사동 축제를 시작했고, 1988년 서울시는 ‘전통문화거리’로 지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1993년에는 ‘청동주물로 제작한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했



그림 3. 1980년대 인사동 경관

자료: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인사동에 전통찻집이 보급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녹차가 보급되었는데, 귀천을 운영하는 목순옥에 따르면, 1985년 자신이 찻집을 열 당시만 해도 녹차 같은 전통차를 파는 곳은 경인 화랑과 귀천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녹차는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성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이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역으로 인사동의 상징성을 강화시켰다.

6) 199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 장소마케팅 본격화와 난개발

고화랑을 운영하는 진동만은 도제식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형님이 여기에 골동품 가게를 해서 거기 드나들면서 좀 배우고, 서라벌이라고 했는데, 친형님은 아닌데, 서라벌이라고 해서 골동품가게를 했었어요.” 이에 반해 현대식 화랑의 주인들은 현대적 교육을 받고 예술적 감각을 가져 1990년대 경제적 불황(문화일보, 1996)이 닥치자 인사동의 사회적 상징성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골동품 산업네트워크의 위축으로 돌파구를 찾던 기존의 상인들도 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일례로 97년부터 99년까지 삼 년간 인사동 보존회 회장을 맡았던 젊은 화랑주(가나아트)는 여러 혁신적인 사업을 벌였다(박상미, 1997). 1996년에는 ‘건고 싶은 거리’로, 1997년에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쇼핑하기 좋은 공간’으로 마케팅 했다. 또, 1998년에는 인사동을 문화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중앙일보, 1998)⁹⁾을 벌여 인사동의 가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냈고, 1999년 영국 여왕 방문을 추진해 상업적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이의 영향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관광상품상가로 변형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으며(매일경제, 1998)¹⁰⁾, 2000년에는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어 물리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때 검은색 전돌, 화강석 물막, 장대석과 같은 전통적으로 궁궐에서 쓰이던 소재가 도입되었다¹¹⁾.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한국일보, 2000)¹²⁾.

1980년대 기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이나 개선작업으로 방문객들은 증가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노점상과 중국산 상품 또한 증가하였다. 더불어 대규모

건물의 신축, 지가 상승에 따른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의 축소(조선일보, 2002)¹³⁾, 골목 안쪽까지의 카페와 술집, 식당의 폭증 같은 부정적 결과도 나타났다. 동서표구사 나중수에 의하면 IMF를 거치면서 “표구사 같은 전통업체들도 관광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공산품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1998년에는 ‘차 없는 거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1999년 지역상인 22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차 없는 거리’ 시행 이후의 변화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문화일보, 1999). 이소영(1999)의 연구에서는 인사동의 전략 주체는, 방문객의 증대로 문화상품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장소마케팅을 평가하고 있다.

7)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제도를 통한 경관 이미지 관리

1999년은 인사동 경관 변화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해이다. 인사동의 상업화에 따른 갈등이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으로 표면화되었고 이는 인사동 경관을 관리코자 하는 제도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한 건설회사가 관훈동 50번지에 있던 열두 가게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¹⁴⁾의 반대로 결국 불발된다(중앙일보, 1999)¹⁵⁾.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는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999년 12월 1일 사회중요인사, 문화예술인, 도시전문가와 지식인 261인이 ‘인사동길 작은 가게 살리기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999년 12월 22일에는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제한을 발표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 했고 제도적 절차로 이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장옥연, 2004).

2002년 4월 체계적으로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고자 우리나라 첫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문화지구 지정 지원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 차원의 ‘지구단위계획’도 이루어졌다. 문화지구는 세계 감면 및 용자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관련 업소를 보호, 육성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및 건축행위 제한, 개발제한을 통해 기존 도시구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런데 지금의 인사동 보존회장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문화지구지정 당시 계획과 입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로 건물주라 세계 감면이나 용자 지원 같은 혜택 또한 건물주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로 장사를 하고 인사동을 지켜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며 문화지구 지정을 귀찮은 제약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제도를 통한 관리 방안은 규제를 통한 보존으로 거시적인 경관관리에 용이하나, 개인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같은 미시적인 측면은 다루이지 않았다. 인사동 내부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인사동 보존회와 인사동 식당들, 인사동 체모습찾기 같은 주민조직은 경관 관리뿐만 아니라 인사동의 전통적 가치를 알리고자 ‘인사동 역사문화탐방’, ‘인사동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인사동 경관의 구성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2.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경관 재구성 과정의 해석

위의 시계열적인 인사동 경관의 재구성 과정을 사회구성론적으로 해석해 볼 때, 경관 이미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경관과 행위자와의 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첩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관 이미지의 확장과 차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상술하였다.

1) 경관구성의 핵심으로서의 경관 이미지

앞에서 경관 재구성의 내용으로 물리적 환경, 이미지 그리고 제도를 제시했는데, 인사동 사례는 경관이미지가 경관 재구성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 형성에 단서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의 ‘골동품’과 ‘한옥 거리’였다. 이것은 어떤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지정학적이고 시대적 배경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현대 미술을 다루는 화랑이 생기면서 ‘문화’라는 특색이 더해져 인사동 거리는 ‘전통과 문화의 거리’로 재해석되었다. 기존연구에서 보이듯이 전통문화, 고미술·화랑, 한옥, 골목길(강성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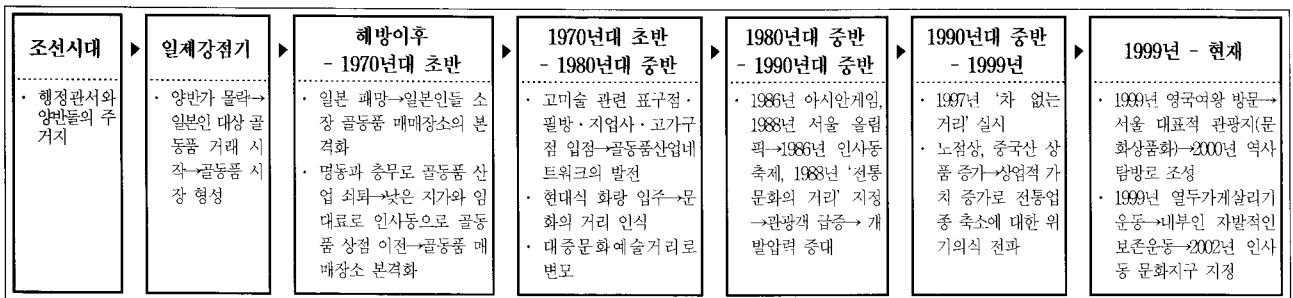


그림 4. 인사동의 변천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초반 -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 1999년	1999년 - 현재
이미지	· 골동품 판매 장소	· 골동품 판매 거리	· Merry's alley · 전통문화의 거리	· 전통문화의 거리 · 전통문화 소비의 거리	· 전통문화 소비의 거리	· 전통문화 소비의 거리 · 전통문화를 유지해야 할 거리
물리적 환경	· 북개도로, 도시형 한옥	· 도시형 한옥, 골동품 상점, 골목길, 현대식 건물 유입	· 도시형 한옥, 골동품 상점, 골목길, 현대식 화랑 건물	· 골동품 상점 감소, 전통찻집, 노점상 증가	· 음식점 증가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찻지길 등 현대식 건물 등장
제도	· 정부의 중부	· 인사동 일대	· 인사동 일대	· 차 없는 거리	· 역사탐방로	· 지구단위계획수립 · 문화지구지정

그림 5. 인사동 경관의 재구성 과정

이 인사동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 이러한 이미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장소마케팅에 따른 2000년의 '역사탐방로' 조성, 소규모 도시형 한옥 필지를 통합한 대형 건축물 신축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정학적 특징과 물리적 환경은 경관 이미지 형성의 근거였으나, 역으로 경관 이미지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것이다.

제도 또한 경관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보호하도록 시행되었다. 1980년대 정부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를 겨냥해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가로개선사업을 시행해, 인사동의 경관 이미지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했다. 반면, 2002년 문화지구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훼손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경관이미지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제도 밖에서는 전통(이미지)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외부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다시 이차적인 경관 재구성의 연속성을 예시한다.

2) 타자 시선의 자연화와 상호관계의 다양화

다음으로, 인사동의 경관과 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경관이미지 형성에서, 외부인 특히 외국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관심으로 골동품 거래가 증가하여 '골동품 거리'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1970년대의 '메리의 지역, 골목길(mary's area, mary's alley)'이라는 별칭도 타자의 시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을 앞두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제 등을 기획한 것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적 불황이 닥치면서 내부 상인은 외부에서 주어진 '전통문화'라는 상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타자의 시선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이라는 상징성은 내부인들에게 자연화 되었고, 더 나아가 타자의 시선을 위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인사동의 경관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내부인(판매자)과 외부인(소비자)이라는 행위자간의 단순 관계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고 시민단체 같은 새로운 행

위자가 개입하기도 했다. 관련 행위자들은 그림 6과 같이 내부인, 외부인, 행정, 전문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내부인은 다시 건물주, 임대상인, 노점상, 기타 내부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인은 다시 종로구민, 서울시민, 기타 국내 방문객, 외국방문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이 있고 이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일례로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 인사동 이미지 개선의 방안으로 상인들은 자신들의 업종 지원과 노점상 정비를 최우선으로 들었다면, 방문객들은 전통 건축물이나 가로시설물을 통해서 '전통성'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내부인 내에도 의견차는 존재한다. 행정이 지원한 지원과 규제에 대해 임대상인은 균등한 혜택이 아니라 건물주에 유리하다¹⁶⁾고 비판하는 반면, 다시 건물주와 임대상인들은 공통적으로 노점상의 증가에 불만을 갖고 있다. 외부인들의 인사동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다. 위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 10대와 20대는 '거리구경'이 방문의 목적인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은 '화랑, 갤러리, 박물관 관람', 40대는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이용'이 방문 목적이다.

3) 경관 이미지의 의미 확장과 차용

인사동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의 확장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사동 자체의 상품가치가 드러나고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 지정으로 이미지가 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서, '골동품'이나 '화랑'이 아니라 '경관 이미지'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통문화'가 지칭하는 바가 확장되었다. 공예품과 한복을 다루는 상점, 녹차 등 전통 차, 막걸리 등을 파는 전통주점이 늘어난 것은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현재에는 음식점 31%, 화랑 28%, 공예품 20% 순으로 업종의 주를 이룬다((사)한국경관협의회, 2008). 1997년부터 시작된 인사동 전통문화축제에 전통 혼례재현, 사물놀이, 민요 대회 등을 포함한 것도 확장된 경관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 인사동에서 중국, 동남아 공산품이 매매되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과 함께 '한국적인 것'에서 '동양적인 것'으로의 전통의 확장도 들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공연이 인사동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2000년 조성된 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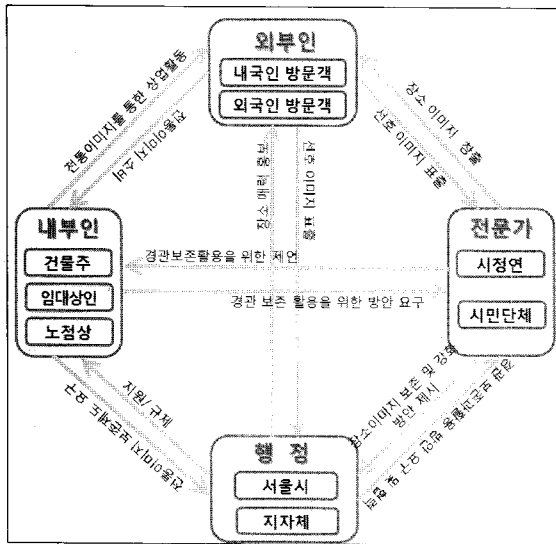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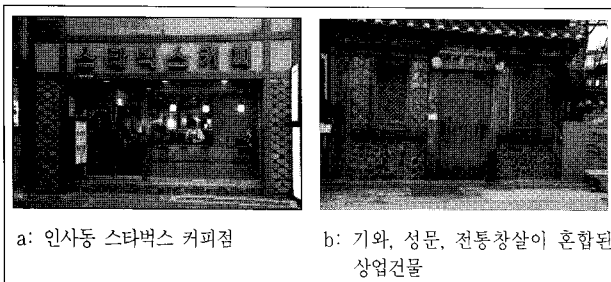
그림 6. 인사동 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상호작용

사마당이 대중음악과 전통문화의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것 또한 '문화'가 의미하는 바가 확장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확장된 경관 이미지는 '디자인 모티브'로 차용되고 있다. 이는 인사동에 국적불명의 시각적 이미지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을 포함한다. 일례로 2000년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시 '전통문화' 구현을 위해 궁궐에서 쓰이던 소재가 사용되었다. 또, 인사동 가로변 건물의 치장에서 전통문화의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있다. 간판명을 한글로 기입하고 전통적 소재를 사용한 '스타벅스 커피'가 이에 대한 예이다. 이러한 방식은 키치적이라는 비판과 인사동의 지역성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사동의 2002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는 가로 조성 과 업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건물 외관에 대한 것은 없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거나 경관 경험에 의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a: 인사동 스타벅스 커피점 b: 기와, 성문, 전통창살이 혼합된 상업건물

그림 7. 전통 이미지를 차용한 외장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경관 이미지의 생산자와 해석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경관이미지 자연화 과정이 경관의 사회적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연구를 요약해 볼 때, 인사동의 경관 이미지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통'으로 일관되지만, 시각적인 측면과 상징적 측면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골동품의 판매하는 장소로 전통공간이라는 경관이미지를 획득하였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거치면서 서울의 차별성 있는 장소로 소개되면서 상징성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 말, 2000년 초 이러한 이미지 강화는 상업화를 가져와 오히려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한 내·외부인에 대한 자각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를 도출시켰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경관과 행위자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경관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인사동에서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 세 가지 요소 중 경관 이미지가 경관의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경관은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유지하려고 경관이 재구성되었다. 즉, 경관 이미지가 경관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업종, 물리적 환경, 제도까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의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골동품에서 한복, 전통주점, 전통찻집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관의 재구성은 '전통문화'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촉발시키고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내부자가 경관 재구성의 행위 주체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이전의 경관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으로 재구성된 경관은 생활이 빠져 있어 '무대화된 진정성(MacCannel, 1979)'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전통'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이나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모두 경관 재구성의 개방성을 막고 고정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 경관을 장소 마케팅의 주요 요소로 바라보고 활용하는 움직임이 큰데, 이는 경관의 사회구성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조경분야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응을 위해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작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추

후 연구 과제는, 인사동의 사례에서는 경관의 재구성에서 경관 이미지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좁게는 전통문화라는 인사동의 경관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있고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 주 1. 서울시 문화 관광 홈페이지(<http://www.visitseoul.net>)
- 주 2. 임승빈(1991)은 『경관분석론』에서는 경관분석 방법을 생태학적·형식미학적·정신물리학적·심리학적·기호학적·현상학적·경제학적 접근 방법 등으로 구분하였고, 김한배(1998)는 형식미학적 접근, 실증과학적 접근, 기호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 주 3. “현대의 사회 이론이 갖는 구조와 행위의 이론론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분리를 극복하고 양자를 접합시키려는 시도에 있다. 또한 사회과정에 대한 성찰(사회과정에 대한 이론과 관찰)은 그것이 기술하는 사건의 모질단에 지속적으로 개입, 이탈, 재개입하는데 이는 자연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
- 주 4. 관청 한성부(漢城府)는 동·서·남·북·중부의 5부(部)로 나뉜다. 5부는 다시 52방(坊)으로 세분했는데, 부는 오늘날의 구(區), 방은 동(洞)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 주 5. 조선 시대에, 공신(功臣)의 훈공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처음에는 공신도감, 충훈사로 부르던 것을 세조 때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경성편람, 소화 4년). “안국동 6거리에서 사동으로 내려가면 좌편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안을 들어서면 古家-軒이 있으니 이 집이 즉, 충훈부이다(동국여지승람, 단기 4291년).” “중부관인방에 있으니 연산갑자년에 옛관부를 철파하다가 금년 초년에 이곳에 옮겨 창건하였다.”
- 주 6. 현재의 경인 미술관 자리이다.
- 주 7. 현재는 ‘민가다현(閔家茶軒)’ 전통차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김좌근의 집터로 몇차례의 필지분양을 거쳐서, 그 중 두 필지에 1938년 건축가 박길룡(朴吉龍)의 설계로 한옥이 두 채가 지어졌다. 정순주(鄭淳周) 가옥은 1994년 서울노원구 월계동 766·767의 1번지로 이전되어 ‘월계동 각심재(月溪洞 恪心齋)’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 주 8. 1970년 설립된 현재 갤러리 현대를 말한다.
- 주 9. 중앙일보 1998년 2월 10일 기사는 “인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이호재)가 최근 서울 인사동의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1백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중략) 문화특구로 지정되면 문화명소로 가꾸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감세, 면세 등의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인사동에 맞는 문화업소를 유치,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다.
- 주 10. 매일경제 1998년 1월 13일 기사는 “가나아트숍은 잡다한 근린생활시설이 모여 있는 일반상가건물 두 개를 터서 하나로 만들었다. 용도를 화랑으로 바꾸기 위해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중략) 주변지역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킨 좋은 결과를 낳았다.”이다.
- 주 11. 현재의 인사동 길을 설계한 (주)서울포럼 대표 김진에 씨는 ‘Archforum’ 웹진(www.archforum.com)을 통해 인사동 길 디자인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한 바 있다. “인사동 길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기와장 색깔 ‘점토벽돌 건물 포장’입니다. 특별하게 인사동 길을 위해서 색깔과 강도를 맞추어 구워낸 점토벽돌입니다. 촉촉이 적셔지면 더욱 색깔이 살아나며, 세 가지 크기를 줄무늬로 배합해서 사람들의 걷는 리듬을 살립니다. 특히 복인사동 길은 차·보도에 전 벽돌을 깔아 통합된 공간을 이룹니다.” 이러한 계획 목적 아래에서 작은 골

- 목으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골목을 ‘잎’ 모양의 주계로 계획되었다.
- 주 12. 한국일보, 2000년 3월 13일 기사는 “(전략) 올 10월 아셈회의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인사동을 찾을 외국 관광객들을 겨냥, 전통음식점들도 새 메뉴 개발에 적극적”이다.
- 주 13. 조선일보 2002년 1월 2일 기사는 “(전략) 몇 십억 원을 들여서 길을 새로 깔고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지만 인사동다운 인사동만 버려졌을 뿐 정작 인사동과 더불어 살고, 인사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안방 뺨기 집주인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먹는장사, 옷장사가 잘 된다니까 너도 나도 몰려들어 3년 사이 땅값이 몇 배가 뛰고, 그러니 당연히 가게 세, 집세가 뛰니 그렇잖아도 불황인 화랑이나 미술업체들이 견딜 방법이 없다. 미술업소들이 번창하니 미술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화랑들은 이제 인사동을 떠날 궁리들을 한다.”이다.
- 주 14. 1998년 문화재인 민익두가를 통과하는 소방도로 신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도시연대는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라는 전문가 모임을 조직해 반대 운동을 전개시켰다. ‘인사모’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6차례의 인사동 탐방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 주 15. 중앙일보 1999년 11월 8일기사는 “(주)썸지는 건설회사에서 다시 이부지를 매입하여 ‘썸지길’을 신축하게 되고, 건물 앞에 열두 가게를 두어 계속 보존토록 했다.”이다.
- 주 16. 한옥 외관 보존에 관한 사항 중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이를 찬성하나 임대 상인들은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건물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발판이 됨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용문헌

1. 강명관(1992) 조선 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 2호.
2. 강성원(2006) 문화지구 지정효과 분석연구-인사동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강화순, 박찬숙(1992) 기든스(A. Giddens) 구조화이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문화경관 해석, 지리학 26(2): 120-147.
4. 경향신문(2008)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2008년 8월 13일자.
5. 김연희(2004) 인사동. 서울: 김영사.
6. 김한배(1998) 우리도시의 얼굴찾기: 한국 도시의 경관변천과 정체성. 태림문화사: 서울.
7. 대한항공(2008) One Fine Day in Seoul. 시티가이드북 서울편.
8. 매일경제(1998) 1998년 1월 13일자.
9. 문화일보(1996) 화랑계 불황 잇단 전시장축소 폐쇄. 1996년 11월 04일자.
10. 문화일보(1999) 1999년 12월 9일자.
11. 박상미(1997) 전통, 권력, 그리고 맛: 인사동 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서 본 지역 정체성의 형성. 외대사학 13(1).
12. (사)한국경관협회(2008) 인사동 10년(1998-2007) 평가와 전망. 서울시.
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인사동 문화지구 외부평가용역. 종로구.
14. 송희은(2007)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심승희(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강진·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이소영(1999) 지역문화와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인사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이영민(2001) 한국도시경관 연구의 쟁점과 과제. 녹우연구논집: 49-63.
18.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 장옥연(2004)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서울 인사동과 북촌 계획 사례.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조선일보(1977) 서울 인사동 거리 학생가로 변모. 1977년 7월 16일자.
21. 조선일보(1981) 노변박물관 인사동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유서 깊은 골동가. 1981년 10월 10일자.

22. 조아라(2007)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일본 홋카이도 세 지방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종로구(2005) 종로구지. 종로구청.
24. 중앙일보(1998) 가나화랑 이호재 사장 활로는 여기다. 1998년 2월 10일자.
25. 중앙일보(1999) 인사동길 개발에 시민단체 등 반발. 1999년 11월 8일자.
26. 한국일보(2000) 인사동 식당들 변화의 바람. 2000년 3월 13일자.
27. 황선옥(2000) 문화환경적 갈등요소에 따른 가로변천에 관한 연구-인사동 거리를 중심으로-. 순천향암대학 24.
28. 中川 正(1989) 還元主義的文化景觀解釋法. 人文地理學研究 13:11.
29. Paasi, A.(1995) Territories, Boundaries and Consciousness: The Changing Geographies of the Finnish. Russian Border: John Wiley.
30. MacCannel, D.(1979) Staged authenticity: of social space in visitor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31. Giddens, A.(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2. Comer, J., Balfour, H. A.(1999)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33. Duncan, J.(1990) The City as 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 Lefebvre, H.(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35. Law, M.(2008) The constitution of space: The structuration of spaces through the simultaneity of effect and percep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1): 25-49.
36. Low, Setha(2000)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University of Texas Press.
37. Shields, R.(1991) Place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8. <http://www.archforum.com>
39. <http://www.kinds.or.kr/>
40. <http://www.visitseoul.net>

원 고 접 수 일: 2008년 11월 7일
 심 사 일: 2008년 12월 3일(1차)
 2009년 1월 2일(2차)
 개 재 확 정 일: 2009년 1월 29일
 3 인 의 명 심 사 필